

심장수술 흉터 4~6cm 최소화

‘15~20cm 가슴 절개, 4~6cm로 줄인다.’

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 심질환자. 이 환자들을 수술로 치료할 때 가슴 흉터를 최소화하는 새 방법이 도입됐다.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이 정렬교수팀(02-3673-5492)은 최근 6개월간 77명의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최소절개수술법을 적용, 통증을 줄이고 흉골이 빨리 아물며 흉터도 3배 이상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.

최소절개 개심술을 받은 77명중엔 심장내 2개의 심실을 나누는 칸막이에 구멍이 난 심실중격 결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. 이밖에 △심방중격 결손 26명 △심실 및 심방 부분중격 결손이 4명이었다.

김교수는 “종전에는 목 아래쪽에서 명치 뼈까지 피부와 가슴뼈를 길게 절개해 상처가 컸고 아물때 흉골이 뒤틀어지는 단점이 있었다”며 “최소절개술을 적용하면 목이 팬 옷을 입어도 상처가 보이지 않고 비용도 1백만원 정도 줄어든다”고 말했다.

**서울대병원
소아흉부외과
회복 빠르고
비용도 저렴**

〈김병희기자〉